2022학년도 성공적인
수능 준비를 위한

9모 분석 자료집

이감 인사이트

I 영역별 특징과 경향

공통과목 : 독서

01. 출제 경향

- 전체적으로 지문 구성의 측면에서는 달라진 점이 없다.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1~3]에 독서론이 출제됨에 따라, 수능에서도 동일한 형식으로 4개의 지문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
- 6월 모의평가가 평가원이 의식적으로 난도를 높이려고 의도하지 않았으나[→ 애초에 의도는 쉽게 출제하는 쪽에 있었으나] 학생들이 체감하기에 상당히 까다로운 시험이었다면, 9월 모의평가는 평가원이 의도적으로 난도를 낮추었다는 인상이 강하게 남는다. 학생들의 깊이 있는 이해를 구체적으로 묻기보다는, 지문에 명시된 내용을 단순히 묻는 문항들이 많았다. 실제 수능에서는 현실적 이유에서든, 교육적 이유에서든 이것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이해를 물어볼 가능성이 높으니 9월 모의평가 성적에 너무 일희일비할 필요는 없다.

02. 지문 및 문항

✔ [1~3] 독서론(단일 지문)

- 난도가 쉬운 편이라 대부분의 학생들에게는 큰 부담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 올해 예술 지문을 출제하지 않음에 따라 적어도 소재의 측면에서는 예술 관련 도서[→ 곰브리치의 『서양미술사』]를 다루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대로 독서론 지문은 이후에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머지 세 지문은 정보량이 크게 줄었는데, 해당 지문만 한 문단이 추가됨에 따라 정보량이 늘어났다.

[4~9] 사회(주제 통합형 지문) : 독점적 경쟁 시장과 광고의 효과

- (가)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가 어떻게 획득되는지를 단기 균형의 상황에 비추어 설명하고 있는데, 다루고자 하는 내용의 깊이가 아주 얕은 편이다.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발생하는 광고의 효과를 깊이 있게 다루기 위해서는 단기 균형을 넘어 장기 균형에 대해서도 설명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에는 난도를 의식해서인지 단기 균형 위주로 소략히 언급하고 있다.
- (나)에서는 독점적 경쟁 시장에서 광고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가)에서는 그로 인해 판매자 간의 경쟁이 제한되는 효과를 다루었다면 (나)에서는 그로 인해 경쟁이 촉진되는 효과를 다루고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정보의 밀도는 매우 낮은 편으로 대부분의 학생들이 수월하게 읽어 낼 수 있었을 것이다. 6월 모의평가에 비하면 (가)와 (나) 사이의 긴밀함은 상당히 떨어지는 편이다. 〈보기〉 문항의 난도 역시 상당히 쉬운 편이며, 앞선 문항의 선지들에서 이미 물었던 내용들을 〈보기〉의 사례 안에서 다시 질문하는 형태였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이다.

[10~13] 인문(단일 지문) :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비판

- 독해의 부담 측면에서 학생들에게 가장 어려웠을 지문으로 추정된다. 그만큼 내용의 논리적 흐름을 제대로 좇지 못했다면 헷갈렸을 지문이다. 다만 '반자유의지 논증'에서 다루는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은 올해 이감 모의고사와 간쓸개에서 여러 차례 언급한 기초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이미 접해 본 학생들에게는 어느 정도 익숙했을 것이다. 13번 문항의 경우 〈보기〉 문항 중에서도 비교적 까다로웠을 것으로 예상되며, 문제의 의도를 최우선하여 판단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정답 선지가 매우 모호하게 느껴졌을 가능성이 높다.

[14~17] 기술(단일 지문) : 메타버스의 기술적 장치들

- 기술 지문은 통상 지문의 중심 소재에 해당하는 개념과 원리를 깊이 있게 이해할 것을 요구하고, 그에 대해 〈보기〉의 특정한 사례에 적용해 보기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번에는 '메타버스'와 관련하여 필요한 기술적 장치들이 열거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어렵게 느껴질 대목이 많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보기〉 문항도 지문에서 언급한 내용을 토대로 일치, 불일치 여부만 판단하면 그만이었기 때문에 정답 선지를 고르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을 것이다. 다만 지문을 토대로 '아바타에게 전달되기로 설정된 감각을 사용자에게 전달하는 것'과 '사용자의 움직임을 아바타에게 전달하는 것'을 구분해서 이해해야만 판단할 수 있는 선지들이 일부 있었다는 점에서 해당 지문이 마냥 쉽지만은 않았을 것이다.

공통과목 : 문학

01. 출제 경향

- 6월 모의평가와 마찬가지로 기존의 수능 출제 경향을 따랐다. 고전소설 4문항, 현대소설 + 시나리오 갈래 복합 6문항, 현대시 4문항, 고전시가 3문항을 출제하면서 마지막 지문에 3문항을 배치하는 형식을 그대로 유지했다.
- 난도는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작품 선정, 문제의 출제 포인트, 〈보기〉의 내용 등을 살펴보면 평가원이 수험생들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노력했다는 생각이 든다. 구체적으로 문항들을 살펴보면 맥락 안에서 내용을 이해해야 하는 문제들을 주로 출제하고 있다. 반면에 22번, 30번, 32번 문항과 같이 서술상의 특징이나 표현상의 특징은 지문 전체를 포괄해서 묻는 것이 아니라 지문의 일부를 지정하거나 구체적인 시어나 시구를 짚어서 물었다. 이는 문제를 푸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낮추기 위한 의도로 볼 수 있겠다.
- 작품만 고려하면 EBS 연계율은 약 43% 정도지만, 작가까지 고려한다면 약 60% 수준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작가 연계까지 가능성을 열어 두고 학습을 할 필요가 있겠다.
- 실제 수능에서는 작품 선정이나 출제 의도가 좀 더 유의미한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9월 모의평가 점수에 큰 의미를 두어서는 안 된다. 한편, 6월 모의평가와 9월 모의평가 모두 34번 문항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의 작품 이해를 요구하고 있으므로, 〈보기〉 내용에만 의존해서 선지를 판단하는 수험생들은 자신의 문제 푸는 방식을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02. 작품 및 문항

✔ [18~21] 고전소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지문으로 발췌된 부분에 제주 방언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독해를 어려워할 것을 예상해 원문보다 읽기 쉽게 윤문을 해서 출제한 것으로 보인다. 문제 역시 상당히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 그중 19번 문항은 최근 평가원이 출제하지 않았던 유형이기는 하다. 〈보기〉를 바탕으로 감상하는 21번 문항 역시 평이하게 출제되었는데, 묻고 답하는 형식의 서술이나 학계의 정설이 아닌 내용 등 기존의 〈보기〉와는 다른 양상들이 눈에 띈다.

✔ **[22~27] 현대소설 + 시나리오 : 오영수, 「갯마을」 / 오영수 원작, 신봉승 각색, 「갯마을」**

- 6월 모의평가에서는 고전시가와 수필을 복합으로 출제한 한편, 이번에는 현대소설과 시나리오를 복합으로 출제했다. 이에 따라 수능에서 '운문-산문', '산문-극' 등 갈래 복합 출제의 가능성이 더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소설을 각색하여 시나리오로 구성한 결과를 탐구하는 문제는 2021학년도 6월 모의평가에 출제된 갈래 복합[→ 고전소설 「전우치전」, 시나리오 「전우치」]의 문제와 유사하다. EBS 연계 작품이 아니라는 점, 갈등의 시작 부분을 발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나리오에 좀 더 중점을 둔 작품 선정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 **[28~31] 현대시 : 오장환, 「종가」 / 최두석, 「노래와 이야기」**

- 현대시는 연계 작품과 비연계 작품을 하나씩 출제하는 기존의 경향대로 EBS 연계 작품인 (가) 오장환의 「종가」[→ 수능특강 수록]와 (나) 최두석의 「노래와 이야기」[→ 수능특강 작가 연계]가 출제되었다. 다만 수능특강에 최두석의 「성에꽃」이 수록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연계 작품뿐만 아니라 연계 작가의 다른 작품도 가능성을 열어 두고 기회가 될 때마다 공부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다. 문제의 난도는 평이했으며, 31번 문항의 〈보기〉에서 작품 설명을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나) 작품이 EBS 연계 작품이 아니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부담을 줄였다.

✔ **[32~34] 고전시가 : 허난설헌, 「규원가」 / 작자 미상,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

- 마지막 지문은 고전시가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문학에서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34번 문항을 마지막에 배치하기 위함으로 추정된다. (가)는 허난설헌의 규방 가사인 「규원가」[→ 수능특강 수록]가 연계 작품으로, (나)는 작자 미상의 사설시조 「재 위에 우뚝 선 소나무~」가 비연계 작품으로 출제되었다. 연계 출제된 「규원가」에 어휘 풀이를 많이 제공하지 않았는데, 이는 EBS에 수록된 고전시가 작품은 확실하게 학습해야 한다는 간접적인 권유로 해석할 수 있겠다. 특히 34번 문항은 다른 지문에 제시된 〈보기〉와 달리 작품의 주제에 대한 설명을 줄이고, 외부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라는 특정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온전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았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선택과목

01. 화법과 작문

- 전반적으로 평이했고, 난이도는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다. 지문의 주제나 내용 자체가 평이했기 때문에 지문 독해에 별다른 어려움은 없었고, 고난도 문항도 없었다. 다만, 함정처럼 만들어 놓은 선지들이 있어 기계적으로 풀기보다는 꼼꼼하게 읽어 실수를 줄였어야 하겠다.
- 출제 형식은 기존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고, 기출에서 한 번씩은 접해 본 것들이다. '화법[35~37]'에서는 '라디오 방송'이 출제되었는데, 이는 2019학년도 수능에서 출제된 것으로, 문항 구성도 매우 유사하다. '작문[43~45]'에서는 '보고서'가 출제되었는데, 이는 2022학년도 수능 예비 시행에 출제된 것이다. 문항 구성이 그때와는 다르지만, 기존 작문에서 흔히 출제되는 문항들이어서 역시나 학생들에게 익숙했을 것이다.
- '화법-작문 통합[38~42]'이 6월 모의평가에서와 마찬가지로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 시정 소식지가 제시되고 협상이 개최된다는 것은 2020학년도 수능과 동일하지만, 42번 〈보기〉에 작문 지문이 하나 더 제시되어 결과적으로 지문이 3개가 되었다. 하지만 〈보기〉에 나타난 기사문은 앞서 제시된 지문들과는 관련성이 떨어진다.
- 화법과 작문에서 언제나 출제되던 '마지막 문단 완성하기'나 '고쳐쓰기' 문제가 이번에는 출제되지 않은 것도 특징적이다. 정보 전달 글의 내용 조직 방식이라든지, 기사문의 작성 방식 등 교과서에 나오는 글쓰기의 특징들을 선지들에 녹여 낸 문제들로 채워졌다.
- EBS 교재와의 연계율은 약 30%에 그치며, 그마저도 매우 느슨한 수준이어서 화법과 작문에서 연계를 체감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02. 언어와 매체 : 언어

- 기존의 출제 형식에서는 크게 벗어나지 않았으며 필수적인 문법 개념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다양한 사례에 적용해 볼 것을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되었다.
- '[35~36] 음운론'의 경우, 음절 구조 제약이라는 다소 낯선 개념을 제시하였지만 기존의 음운론 문제에서 다루었던 내용과 관련이 높아 지문 이해가 어렵지는 않았을 것이다.
- '[37] 형태론'의 경우, 묻고 있는 개념은 어렵지 않았지만 각 사례들을 정확히 분석하고 개별 접사의 기능을 파악해야 했으므로 문제 풀이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 '[38] 통사론'은 문장의 구조와 높임 표현이라는 두 가지 문법 개념이 결합 출제되어 학생들이 다소 어렵게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
- '[39] 국어사'의 경우, 중세 국어 격 조사의 쓰임을 묻는 문법 기본 학습 사항을 출제했으나, 이를 사례에 적용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었다.

03. 언어와 매체 : 매체

- 전반적으로 평이했다. 난이도는 6월 모의평가와 비슷했으나, 지문의 분량 자체가 적어 시간은 덜 소요됐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문의 주제나 내용 역시 특별한 것은 없었으며 고난도 문제도 눈에 띄지 않았다.
- 출제 형식은 매체의 비판적 수용, 매체의 생산,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을 하나로 묶어 4문항으로 출제했으며, 매체의 특성과 표현 기법을 다른 하나로 묶어 2문항으로 출제했다. 6월 모의평가에서는 매체의 특성, 비판적 수용, 매체의 생산을 하나로 묶어 3문항으로 출제하고 매체의 정보 구성 방식, 국어 자료의 언어적 특성, 매체의 표현 기법을 다른 하나로 묶어 3문항으로 출제한 것과 비교해 볼 수 있겠다.
- 교과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보 구성 방식에 대해 묻는 문제가 빠졌지만 이는 매체의 특성과 그 내용상 간섭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비판적 수용과 관련하여 〈보기〉가 주어졌던 것과 달리 선지만으로 판단하게끔 하였다. 〈보기〉를 통해 비판적 수용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교과서에서 배운 지식을 기반으로 선지를 판단하게 출제한 것이다.

Ⅱ 이감 연계 양상

공통과목 : 독서

분야	주제	EBS 연계	이감 연계
인문 [10~13]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한 비판	수능특강 p.252	2021 이감 시즌5 2차 2021 시즌1 간쓸개 01 2021 시즌2 간쓸개 01 2021 시즌5 간쓸개 02

공통과목 : 문학

분야	작품	EBS 연계	이감 연계
고전소설 [18~21]	작자 미상, 「배비장전」	수능특강 p.143	2021 이감 시즌2 1차
현대시 [28~31]	(가) 오장환, 「종가」	수능특강 p.296	2021 이감 시즌2 2차
고전시가 [32~34]	(가) 허난설헌, 「규원가」	수능특강 p.61	2021 이감 ON 3차 2021 시즌1 간쓸개 06 2021 시즌3 간쓸개 05 2021 시즌4 간쓸개 03 2021 시즌5 간쓸개 05, 06 2021 간쓸개 에센셜 02, 03, 04 2021 파이널 간쓸개 Ⅰ

선택과목 : 화법과 작문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화법 **[35~37]**	(라디오 방송) 교우 관계의 어려움	-	2021 이감 시즌5 5차 2021 이감 ON 5차
화법-작문 **통합** **[38~42]**	(소식지 & 협상) 주민 복지 센터 공간 활용	-	2021 이감 시즌4 2차 2021 이감 시즌4 3차 2021 이감 시즌5 5차 2021 이감 강대 1차
작문 **[43~45]**	(보고서) 학교 협동조합 매점	수능완성 p.211	2021 이감 시즌4 2차 2021 이감 시즌4 3차 2021 이감 ON 2차, 5차 2021 이감 ON 6차 / 이감 강대 3차

선택과목 : 언어와 매체

분야	제재	EBS 연계	이감 연계
음운론 **[35~36]**	음절의 개념과 유형 / 음절 구조 제약에 따른 음운 변동	수능특강 p.55 수능완성 p.153	2021 이감 시즌1 1차 2021 이감 시즌4 3차 2021 이감 시즌5 7차 2021 이감 ON 5차 2021 언어(문법) 200제
형태론 **[37]**	접사의 특징	수능특강 p.62	2021 이감 시즌1 1차
통사론 **[38]**	안은문장에서의 높임 표현	수능특강 p.67 수능완성 p.101	2021 이감 시즌4 4차 2021 이감 시즌5 4차 2021 이감 ON 2차 2021 이감 ON 4차 / 이감 강대 2차
국어사 **[39]**	중세 국어의 격 조사	수능특강 p.87 수능완성 p.154	2021 이감 시즌4 3차 2021 이감 시즌5 3차 2021 이감 ON 3차 2021 이감 ON 6차 / 이감 강대 3차
언어-매체 **통합** **[40~43]**	(종이 신문 & 카드 뉴스) 청소년의 사회 참여	-	2021 이감 시즌4 1차 2021 이감 시즌4 2차 2021 이감 시즌4 5차 2021 이감 시즌5 1차 2021 이감 시즌5 4차 2021 이감 ON 6차 / 이감 강대 3차
매체 **[44~45]**	(인터넷 채팅방 & 웹툰) 교우 관계에서 발생한 문제 해결	-	2021 이감 시즌4 5차 2021 이감 시즌5 6차 2021 이감 ON 4차 / 이감 강대 2차

독서 : 인문 —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에서 반자유의지 논증을 설명하기 위해 동원한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동일한 방식으로 다룸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redacted]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redacted]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redacted]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21 이감 시즌5 2차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에 대해 행위자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고 보는 상식과, 모든 행위는 그에 앞선 사건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결정론은 양립 불가능한 것처럼 보인다. 결정론은 행위자 X가 행위 A를 했다고 할 때 A는 X의 의지 또는 이것에 대응하는 뇌 속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고 본다. 결정론에 따르면 이때 X의 의지 역시 유전적 요인과 외부 환경에 관련된 앞선 사건에 의해 결정되므로, 자유 의지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어서 행위자에게 책임을 귀속할 수 없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철학자들은 행위에 대한 비결정론적 관점은, 결정론적 관점보다 더 분명하게, 도덕적 책임을 행위자에게 귀속하는 문제와 충돌한다고 본다. 비결정론은 사건들이 우연히 일어난다고 보는 입장인데, A가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라면 X에게 A에 대한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것이다.

[redacted] 이에 맞서는 결정론과 도덕적 책임의 귀속이 양립 가능하다는 [redacted] 주장한다. 양립주의에 따르면 A가 강제나 강압에 [redacted] 아니기만 하면 X에게 도덕적 책임을 지울 수 있다. 도덕적 책임의 귀속을 앞선 원인에 의해 의지가 결정되는지의 여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나 강압에 의한 행위가 아니면서 X의 의지에 의해 A가 야기된 것이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X의 의지가 유전적 요인이나 외부 환경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더라도 A에 대한 도덕적 책임의 귀속이 가능하다.

지문 적중

독서 : 인문 —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이 제시한 '무작위 가정을 택하더라도 자유의지가 존재할 수 있다는 논증'을 구체적으로 풀이하여 설명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redacted]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된다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21 시즌1 간쓸개 01

(가) 모든 사건은 선행하는 사건과 인과 법칙에 의해 결정된다는 결정론이 옳다면, 우리에게 자유 의지는 없는 것처럼 보인다. 어떤 사건이 원인에 의해 이미 결정된 것이라면 그 사건이 다른 식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애초부터 없어 보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영화나 음식을 고를 때처럼 여러 대상 중에서 하나를 자유롭게 선택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은 우리의 직관과 경험에 부합한다. 그렇다면 결정론은 타당하지 않은 것일까? 결정론과 자유 의지는 양립할 수 없는 것일까?

(나) 모든 사건의 발생에 그 나름의 원인이 있다는 결정론도 직관적으로 타당해 보인다. 더구나 결정론이 옳지 않다고 가정해도 자유 의지의 존재가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결정론이 옳지 않다는 것은 모든 사건이 제멋대로 일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모든 사건이 우리의 의지와 무관하게 발생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이다. 제멋대로 일어나는 사건은 우리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다. 결국 ㉠ 결정론이 옳든, 옳지 않든 우리에게 자유 의지가 없다는 딜레마에 빠지게 된다.

(라) 딜레마에서 벗어나 자유 의지가 존재함을 보여 주는 또 다른 방법은 결정론이 옳은지에 관한 두 선택지 중의 하나에서 다른 결과가 도출됨을 보여 주는 것이다. 그런데 결정론이 옳지 않다는 선택지의 경우 자유 의지의 존재와 양립하기 힘들다. 원인이 없는 사건은 제멋대로 일어나는 것이므로 우리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결정론이 옳다는 전제하에 자유 의지와 결정론을 조화시킬 방안을 찾아야 딜레마에서 벗어날 수 있다. 그 방안은 결정론을 '강한 결정론'과 '약한 결정론'으로 구분[redacted]

(마) 강한 결정론은 어떤 원인이 있다면 그에 따르는 결과가 불가피하게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본다. 그[redacted]는 현실적으로 일어나[redacted]므로 어떤 행동에 원인이 있다면 그 행동에는 자유 의지가 [redacted]없다고 생각한다. 이[redacted] 달리 약한 결정론은 어떤 사건의 발생에 원인이 있다고 하여 [redacted]가피하게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면 그에 따른 결과가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강제가 없다면 우리는 언제든 다르게 행동하여 결과를 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의 사건이 다른 식으로 일어날 수 있었음에도 현재의 모습으로 일어난 것이라면, 자유 의지에 의해 그렇게 행동하여 일어난 사건으로 볼 수 있다. 즉 원인이 존재함과 자유 의지가 존재함은 양립할 수 있다. 약한 결정론에 따르면 자유 의지의 존재와 논리적으로 대립하는 것은 외부의 강제이지 결정론인 것은 아니다.

지문 적중

독서 : 인문 — 동일한 개념을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

– 평가원 지문이 다룬 여러 개념들을 이감에서 여러 차례 동일한 방식으로 설명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관점이 있다. 종교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에게는 물리적 실체인 몸 이외에 비물리적 실체인 영혼이 있다. 영혼은 물리적 몸과 완전히 구별되며 인간의 결정의 원천이다. 반면 유물론적 인간관에 따르면, 인간은 물리적 몸에 지나지 않는다. 물리적 몸 이외에 영혼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인간의 결정은 단지 뇌에서 일어나는 신경 사건이다. 이러한 두 관점 중 유물론적 인간관을 가정할 때, 인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을까? 즉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있을까? 가령 갑이 냉장고 문을 여니 딸기 우유와 초코 우유만 있다고 해 보자. 갑은 이것들 중 하나를 자유의지로 선택할 수 있을까?

이러한 질문과 관련하여 반자유의지 논증은 갑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우선 임의의 선택은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결정되거나 무작위로 일어난다. 여기서 무작위로 일어난다는 것은 선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전제하에 반자유의지 논증은 선결정 가정과 무작위 가정을 모두 [redacted] 첫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그 이전 사건들에 의해 선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심지어 갑이 태어나기도 전에 선결정된 것이라면 갑이 자유의지로 그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두 번째로 임의의 선택이 무작위로 일어난 것이라 가정해 보자. 반자유의지 논증에서는 이 경우에도 우리에게 자유의지가 없다고 결론 내린다. 가령 갑의 딸기 우유 선택이 단지 갑의 뇌에서 무작위로 일어난 신경 사건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자유의지의 산물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이 논증에 관한 다양한 비판이 가능하다. ㉠ 반자유의지 논증을 비판하는 한 입장에 따르면 반자유의지 논증의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여야 하지만,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 따라서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도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아래와 같다.

2021 시즌2 간쓸개 01
2021 시즌5 간쓸개 02

우리는 어떤 행위가 행위자의 자유 의지에 의한 것일 때에 그 행위에 대해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여긴다. 그렇다면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기준은 무엇일까? 아리스토텔레스에 따르면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란 스스로의 결정에 의한 행위로, 그 행위를 하거나 혹은 하지 않음이 전적으로 행위자에 의해 좌우되는 행위를 말한다. ㉠ 자유 의지에 관한 전통적 입장은 이러한 인식을 토대로 '대안 가능성 원리'를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를 가리는 기준으로 삼았다. 이는 다른 대안적인 행위를 선택하는 것이 가능한 경우에 스스로 결정하여 행한 어떤 행위가 곧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라는 원리이다.

그러나 ㉡ 프랑크푸르트에 따르면 대안 가능성 원리는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잣대로 만족스럽지 못하다. 다른 행위를 하는 것이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자유 의지에 의한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는 반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결정론은 이 세계에서 벌어지는 모든 사건이 어떤 외적인 힘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을 말한다. 철학자 포퍼에 따르면 결정론은 미래를 결정하는 힘을 무엇으로 보는가에 따라 종교적 결정론과 과학적 결정론으로 나뉜다.

종교적 결정론은 미래의 사건이 세계를 만든 신과 같은 존재에 의해 이미 결정되어 있거나 신에게 알려져 있다고 보는 입장이다. [redacted] 통해 우리에게 미래가 알려진다면 미래 사건은 예측 [redacted] 런데 포퍼에 따르면 종교적 결정론은 미래를 결정하는 [redacted] 힘으로 전제하고 있는 신의 [redacted] 속성으로 인해 논리적 모순에 빠진다. 종교적 결정론에 따르면 신은 전지하면서 동시에 전능하다. 전지하다는 것은 이미 결정되어 있는 미래의 사건을 아는 능력이며, 전능하다는 것은 미래를 온전히 결정하거나 뒤바꿀 수 있는 능력을 뜻한다. 포퍼는 고정되어 있는 미래를 아는 것과 미래를 바꿀 수 있다는 것 사이에는 모순이 발생한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고정된 미래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결정론은 더 이상 결정론일 수 없다고 보았다.

우리는 어떤 물건을 집으려고 의도하고 그것을 실행에 옮길 수 있다. 그 행위가 외부의 강제에 의한 것이 아니라면 행위자의 자유 의지가 행위의 원인이라는 점은 상식에 ㉮ 부합한다. 자유 의지의 존재는 모든 미래가 이미 결정되어 있다고 보는 '강한 결정론'에 배치되지만,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으며 원인이 무엇인지에 따라 결과가 정해져 있다고 보는 '약한 결정론'과는 양립 가능하다. 자유 의지와 행위 간에 인과성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뇌 과학의 연구들에 따르면 의지가 발현되기에 앞서서 이미 행위에 대한 신호가 운동 신경에 작동된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자유 의지의 존재를 부정하는 입장의 근거로 제시되고 있다.

지문 적중

독서 : 인문 — 유사한 소재를 활용

– 평가원 지문이 〈보기〉에서 다룬 실험 상황을 이감은 지문에서 상세히 설명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13. 윗글의 ㉠에 입각하여 학생이 <보기>와 같은 탐구 활동을 한다고 할 때, [A]에 들어갈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3점]

<보 기>

자유의지와 관련된 H의 가설과 실험을 보고, 반자유의지 논증에 대해 논의해 보자.

• **H의 가설**

인간이 결정을 내릴 때 발생하는 신경 사건이 있기 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할지 알게 해 주는 다른 신경 사건이 그의 뇌에서 매번 발생한다.

• **H의 실험**

피실험자의 왼손과 오른손에 각각 버튼 하나가 주어진다. 피실험자는 두 버튼 중 어떤 버튼을 누를지 특정 시점에 결정한다. 그 결정의 시점과 그 이전에 발생하는 뇌의 신경 사건을 동일한 피실험자에게서 100차례 관측한다.

○ **논의** : [A]

①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선결정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거부해야 한다.
②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된다면, 무작위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③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선결정 가정은 참일 수밖에 없다.
④ H의 가설이 실험 결과에 의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무작위 가정을 고려할 때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⑤ H의 가설의 실험 결과에 의한 입증 여부와 상관없이, 반자유의지 논증의 결론을 받아들여야 한다.

2021 시즌5 간쓸개 02

리벳은 이러한 정보 처리 양상을 살피기 위해 실험을 하였다. 뇌에는 얼굴이 있는 앞쪽에서 뒤쪽까지 중심 고랑이 있다. 이 고랑의 주변에 있는 대뇌 피질 중 뒤쪽에 위치한 감각 피질 영역에는 감각 기관을 거쳐 유입된 감각 신호가 도달한다. 그리고 신체의 특정 부위를 움직이는 운동 신호는 고랑 주변의 대뇌 피질 중 앞쪽에 위치한 운동 피질 영역에서 발생하여 척수 등을 거쳐 그 신체 부위로 전달된다. 두 영역은 모두 각 신체 부위와 대응하는 부분들로 나뉜다. 예컨대 운동 피질 영역의 특정 부분은 오른손 검지의 근육을 [illegible] 발생하도록 전문화되어 있다. 리벳은 이러한 점을 [illegible] 피험자의 운동 피질 영역 중 오른손 검지에 해당하는 부위에 뇌전도 장치를 연결하여 전위를 측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피험자가 시계를 보다가 원하는 시점에 오른손 검지로 버튼을 누르게 하고, 버튼을 누르려고 의도한 시점을 보고하도록 하였다.

수십 차례의 실험을 거친 결과, 피험자들이 버튼을 누르겠다고 의도한 시점은 손가락 근육이 움직인 시점보다 약 0.20초 앞섰다. 그런데 뇌전도 장치에 '준비 전위'가 나타나기 시작한 시점은 리벳의 예상과 달리 손가락 근육이 움직인 시점보다 약 0.55초 앞섰다.

소재 적중

문학 : 고전소설 — 작품 적중

– 「배비장전」을 공통으로 다룸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조그마한 돛대 세운 배에 가서 물어보시오. 그 배가 제주 성내에 사는 부인 한 분이 친정이 해남인데 급한 일이 있어 비싼 값을 주고 혼자 빌려 저녁 물에 떠난다더니, 참 떠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배 비장이 그 말 듣고 좋아라고 허겁지겁 그 배로 뛰어가서 사공을 찾는다.

"ⓓ어이, 뱃사공이 누구여?"

사공이 반말에 비위가 틀려,

"어! 사공은 왜 찾어?"

"말 좀 물어보면…."

"무슨 말?"

"그 배가 어디로 가는 배여?"

"물로 가는 배여."

원래 배 비장이 사공을 공손하게 [illegible]하기는 조라하고 '해라' 하자니 제 모양 보고 받을는지 몰라, [illegible]정쩡하게 말 [illegible] 사공의 대답이 한층 더 올라가는 것을 보고, 한숨을 [illegible]

"허! 내가 그저 **춘몽을 못 깨고 또** [illegible]수를 하였구나!"

어법을 고쳐 입맛이 썩 들어붙게,

"여보시오, ⓔ노형이 이 배 임자시오?"

사공은 목낭청*의 혼이 씌었던지 그대로 좋아가며,

"그렇습니다. 내가 이 배 임자올시다."

"들으니까 노형 배가 오늘 떠나 해남으로 간다지요?"

"예, 오늘 저녁 물에 떠납니다."

"그러면 내가 서울 사는데 지금 가는 길이니 좀 타고 가옵시다."

"좋은 말씀이올시다마는 이 배가 행객 싣는 배가 아니옵고, 해남으로 가시는 부인 한 분이 혼자 빌려 가시는 터인즉, 사공의 임의로 다른 행객을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는 그러하겠소마는, 내가 부모 병환 급보를 듣고 급히 가는 길인데, 달리 가는 배는 없고 이 배가 간다 하니, 아무리 부인이 타신 터이라도 이러한 정세를 말씀하시고, 한편 이물 구석에 종용히 끼어 가게 하여 주시면 그 아니 적선이오?"

"당신 정경이 불쌍하오. 그러면 해 진 후에 다시 오시면, 부인 모르시게라도 슬며시 타고 가시게 하오리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2021 이감 시즌2 1차

방자 놈 분부 듣고 배 비장께 전하니, 배 비장 마음에는 당기건만 하릴없이 억제하고 방자 편에 회답하되,

"먼저 안부 물으시니 대단 황공하오이다. 모처럼 청하심에 거절함이 당돌하나, 성격이 원래 옹졸하여 기악은 즐기지 않사오니, 본인은 용서하시고 여러 동관께서나 재미있게 노소서."

다시 하인을 불러 분부하되,

"네 만일 지금 이후로 기생들을 내 눈앞에 얼씬이라도 하게 하면 엄하게 매질하고 쫓아내리라."

사또가 대청에서 배회하다 이 말을 언뜻 듣고 "허허" 하며 크게 웃은 후, 이튿날 날이 밝자 읍중 기생 다 부른다. 호방이 안책*을 들여놓고 글귀로 기생을 부르는데, 대단 재미있는 모양이었다.

"만리화풍 류연이, 수각연주 설향이, 오릉춘색 도화, 기처경몽 화정이, 환신요유 농월이, [illegible] 자릉종로 부춘이, 반탑도서 송죽이, [illegible] 춘베북극 영선이, 만당춘광 홍년이, [illegible]선이, 시능부등가무능에 제일미색 애랑이."

기생 점고 마친 후에 사또가 분부한다.

"너희 여러 기생 중에 배 비장을 혹하게 하는 자 있게 되면 큰 상을 줄 것이니, 누가 능히 거행하겠느냐?"

그중 애랑이 머리를 숙이고 입을 열어 공손히 여쭈오되,

"소녀가 불민하오나 사또 분부대로 거행할까 하나이다."

"오, 네 능히 배 비장을 훼절시키면 참으로 제주 기생 중에 인재라 하리로다."

애랑이 여쭈오되,

"사또 분부는 소녀의 수단대로 하오리니, 방시춘풍 좋은 때라 사또께옵서 명일 한라산 꽃놀이를 하옵시면, 소녀 그사이에 묘계를 얻어 배 비장으로 훼절케 하오리다."

[B] 사또 허락하고 이튿날 날 밝은 후 산놀이 거행 차리시니 위의가 찬란하다. 용머리 새긴 주홍색 가마 호피 돋움 높이 타고, 전월 부월 찬 무관은 순시 깃발 벌여 세우고 큰길 위로 나아갈 제, 녹의홍상 미인들은 흰 비단 옷소매를 높이 들어 풍악 소리 화답하여 지화자 지화자 하니, 백화 수림(百花樹林) 깊은 곳에 꽃도 같고 새도 같다.

– 작자 미상, 「배비장전」 –

작품 적중

문학 : 현대시 — 작품 적중 및 문항 유사

- 「종가」를 공통으로 다루었으며, 문항에서 다루는 지점이 상당 부분 일치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리어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왔다고 오조 할머니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빤들빤들한 달걀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30. (가), (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쩡쩡 울리던 옛날'과 '달걀귀신이 융융거린다는 마을의 풍설'을 통해 '종가'에 대한 인상을 감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
② (가)는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과 '검은 기와집'을 통해 '종가'의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다.
③ (나)는 '그러나'라는 시상 전환 표지를 활용하여 '노래'만으로는 화자가 바라는 '시' 창작이 어렵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④ (나)는 '처용'이 부른 '노래'와 '처용'에 대한 '이야기'의 성격을 비교하여 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⑤ (가)는 '지금도'를 통해 '종가'의 불변성을, (나)는 '이제'를 통해 '시'의 영속성을 강조하고 있다.

2021 이감 시즌2 2차

(가)

돌담으로 튼튼히 가려 놓은 집 안엔 **검은 기와집** 종가가 살고 있었다. ㉠ 충충한 울 속에서 거미 알 터지듯 흩어져 나가는 이 집의 지손(支孫)*들. 모두 다 싸우고 찢고 헤어져 나가도 오래인 동안 이 집의 광영(光榮)을 지키어 주는 **신주(神主)***들 들은 대머리에 곰팡이가 나도록 알리어지지는 않아도 종가에서는 **무기**처럼 아끼며 제삿날이면 갑자기 높아 제상(祭床) 위에 ㉡ 날름히 올라앉는다. 큰집에는 큰아들의 식구만 살고 있어도 제삿날이면 제사를 지내러 오는 사람들 오조 할머니와 아들 며느리 손자 손주며느리 칠촌도 팔촌도 한데 얼리어 ㉢ 닝닝거린다. 시집갔다 쫓겨 온 작은딸 과부가 되어 온 큰고모 손꾸락을 빨며 구경하는 이종 언니 이종 오빠. 한참 ㉣ 쩡쩡 울리던 옛날에는 오조 할머니 집에서 동원 뒷밥*을 먹어 왔다고 오조 할머니도 남편도 동네 백성들을 곧—잘 잡아들여다 모말굴림*시키고 주릿대를 앵기었다고. 지금도 종가 뒤란에는 중복사 나무 밑에서 대구리가 빤들빤들한 달걀귀신이 ㉤ 융융* 거린다는 마을의 풍설. 종가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일을 안 해도 지내 왔었고 대대손손이 **아—무런 재주도 물리어받지는 못하여** 종갓집 영감님은 근시 안경을 쓰고 **눈을 찝찝거리며** 먹을 궁리를 한다고 작인(作人)들에게 고리대금을 하여 살아 나간다.

- 오장환, 「종가」 -

28. ㉠~㉤의 의미를 고려하여 (가)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을 활용하여 폐쇄적인 종가가 분열로 쇠락해 가는 암울한 분위기를 부각하고 있다.
② ㉡을 활용하여 종가의 사람들이 시류에 편승해 기존의 권위를 발 빠르게 재정립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③ ㉢을 활용하여 많은 혈족들이 모여들어 분분한 제삿날 종가의 분위기를 환기하고 있다.
④ ㉣을 활용하여 종가가 근방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끼칠 만큼의 위세를 누렸음을 드러내고 있다.
⑤ ㉤을 활용하여 종가의 횡포를 기억하는 마을 사람들이 종가를 불길하고 꺼림칙하게 여기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작품 적중

문학 : 현대시 — 문항 유사

- 「종가」의 〈보기〉 문항에서 서사성에 대해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1. <보기>를 바탕으로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에서 화자는 '종가'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서술함으로써 종가와 연관된 사람들의 상처를 드러내고, 이러한 종가의 이야기가 현재의 상황과 연결되도록 현재 시제를 주로 사용하여 생동감 있게 표현했다. (나)에서 화자는 '시'가 '노래'의 성격을 되찾아야 할 뿐만 아니라, 감정의 과잉으로 상처가 오히려 깊어지기도 하는 노래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이야기'가 요구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가)는 종가에 대한 화자의 경험을 이야기한 산문 형식의 시이고, (나)는 「종가」와 같은, 이야기가 두드러진 시를 짓는 까닭을 제시한 [illegible] 성격의 시이다.

① (가)는 종가 구성원들의 행동을 현재 [illegible] 생동감 있게 함으로써 종가의 이야기와 현실이 연관되도록 서술하고 있군.
② (가)는 '동네 백성들'이 받은 상처를 보여 줌으로써 종가의 부정적 측면을 드러내려는 화자의 의도를 부각하고 있군.
③ (나)는 상처가 노래에 쉽게 덧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서 노래의 성격이 분리된 결과를 보여 주고 있군.
④ (나)는 '뇌수'와 '심장'의 결합을 희망한다고 말함으로써 시에 이야기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담아내고 있군.
⑤ (가)는 종가에 얽힌 경험과 상처에 대한 이야기를, (나)는 시 창작에서 이야기의 활용이 지니는 의미를 제시하고 있군.

2021 이감 시즌2 2차

30.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시는 현실의 불합리한 국면을 비판적으로 드러내고자 할 때 서사성을 활용하기도 한다. 시의 화자는 소설의 서술자처럼 설명적 진술을 활용하여 문제적인 상황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기도 하고, 배경과 인물 등의 서사적 요소를 활용하여 상황을 장면화함으로써 현실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드러내기도 한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대상을 이질적인 소재와 결부하여 형상화하거나, 화자의 정서가 투영된 묘사적 진술을 구사하여 시인의 주관적 관념을 드러낸다.

① (가)의 '검은 기와집'은 종가 사람들의 봉건적인 삶을 장면화하기 위한 공간적 배경이고, (나)의 '출근 버스'는 현대 여성의 [illegible]운 삶을 장면화하기 위한 공간적 배경이겠군.
② (가)에서 '신주들'을 '부기'에 빗대거나 (나)에서 '한 식구의 안식'을 '거부의 화살을 당기'는 주체로 표현한 것은, 대상을 이질적 소재에 결부시킴으로써 시인의 비판적 의식을 내비치는 것이겠군.
③ (가)의 '아—무런 재주도 물려어받지는 못하여'라는 진술과 (나)의 '남편을 위하여 버린 시간일 거야'라는 진술은, 문제적 상황에 처한 인물이 서술자의 입장에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한 것이겠군.
④ (가)의 '눈을 찝찝거리며'와 같은 묘사에서는 봉건적 수탈에 대한 시인의 부정적 인식을, (나)의 '옆으로 앞으로 꾸벅꾸벅'과 같은 묘사에서는 여성들의 삶에 대한 시인의 안타까움을 엿볼 수 있겠군.
⑤ (가)와 (나)의 제목은 현실의 단면을 압축적으로 표상하는 배경이나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해할 수 있겠군.

문항 유사

문학 : 고전시가 — 작품 적중

- 「규원가」를 공통으로 다루었으며, 수록된 지문이 상당 부분 일치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B]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라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illegible]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섯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엣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2021 시즌4 간쓸개 03

㉠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피었다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취눈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슨 일인고.
㉡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illegible]없이 생각만 많다.
[illegible] 모진 목숨 죽[illegible]도 어려울사.
[illegible]커 풀이 헤아리[illegible]니 이리 하여 어이 하리.
청등(靑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섞어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
㉣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래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로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작품 적중

문학 : 고전시가 — 문항 유사

- 「규원가」 계절적 상황의 시적 기능과, 화자의 정서와 관련하여 소재의 기능을 묻는 문항의 내용이 유사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2. [A]~[C]의 표현상 특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A]는 여성의 생활에 밀접한 소재를 활용하여 흘러가는 세월에 대한 화자의 인식을 시각적으로 표현하였다.
② [B]는 단어를 반복하는 구절을 행마다 사용하여 화자가 주목하는 각 계절의 특성을 강조하였다.
③ [C]는 두 대상을 발음이 비슷한 의태어로 표현하여 움직이는 모습의 유사성을 드러내었다.
④ [A], [B]는 계절적 배경을 알려 주는 시어를 활용하여 시간에 따라 화자의 처지가 달라졌음을 드러내었다.
⑤ [B], [C]는 대구를 활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였다.

34. <보기>를 참고하여 (가),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가), (나)는 이별에 대한 서로 다른 대처를 보여 준다. (가)의 화자는 외부와 단절된 채 자신의 쓸쓸한 내면에 몰입하고,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다. (나)의 화자는 외부 대상의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하며 슬픔을 확인하면서도, 슬픔을 분출하는 자신의 우스운 외양에 주목한다. (가)는 슬픔을 확장하고 펼쳐 냄으로써, (나)는 슬프지만 슬픔과 거리를 둠으로써 이별에 대처한다.

① (가)에서 '실솔이 상에 울 제'는 화자가 자신의 슬픔을 주변으로 확장한 것을 보여 주는군.
② (가)에서 '부용장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는 화자가 외부와의 교감을 거부하고 내면에 몰입하는 모습을 드러내는군.
③ (나)에서 화자는 '소나무'가 '바람 불 적마다 흔덕'거리는 모습에서 자신과의 동질성을 발견한 것이겠군.

2021 시즌4 간쓸개 03

22 윗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심미적 관점에서 자연의 미추(美醜)를 드러내고 있다.
② 계절적 심상을 활용하여 시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③ 화자가 추구하는 이상 세계의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④ 의성어를 반복 사용하여 화자의 심리를 표현하고 있다.
⑤ 명령과 설득의 어조를 교차하여 화자의 태도를 부각하고 있다.

23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 : '매화'에는 미래에 대한 화자의 소망이 담겨 있다.
② ㉡ : '경물'은 화자의 처지와 대비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③ ㉢ : '가을 달'과 '실솔'은 화자의 정서를 심화한다.
④ ㉣ :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는 시상의 흐름이 전환되는 계기에 해당한다.
⑤ ㉤ : '옛 소래'에는 화자의 연주 솜씨가 빼어나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문항 유사

문학 : 고전시가 — 작품 적중

- 「규원가」를 공통으로 다루었으며, 수록된 지문이 상당 부분 일치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가)

공후배필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 원하더니
삼생의 원업(怨業)이오 월하의 연분으로
장안유협(長安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 있어
당시의 용심(用心)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이팔 겨우 지나 천연여질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로 백년기약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훌훌하고 조물이 다시(多猜)*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오리에 북 지나듯 [A]
설빈화안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거고나
내 얼골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괼소냐

(중략)

옥창에 심은 매화 몇 번이나 피여 진고
겨울밤 차고 찬 제 자최눈 섯거 치고
여름날 길고 길 제 궂은비는 무슨 일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의 경물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제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려울사
도로혀 풀쳐 헤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을 돌라 놓고 녹기금(綠綺琴) 빗겨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섯거 타니
소상야우(瀟湘夜雨)의 댓소리 섯도는 듯
화표천년(華表千年)의 별학이 우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 엣 소리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하니 뉘 귀에 들리소니
간장이 구곡되어 굽이굽이 끊쳤어라
차라리 잠을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의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짐승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다

- 허난설헌, 「규원가」 -

2021 시즌3 간쓸개 05

공후배필(公侯配匹)은 못 바라도 군자호구(君子好逑)* 원하더니
삼생(三生)의 원업(怨業)이오 월하(月下)*의 연분(緣分)으로
장안(長安) 유협(遊俠) 경박자(輕薄子)를 꿈같이 만나서
당시의 용심하기 살얼음 디디는 듯
삼오 이팔(三五二八) 겨우 지나 천연여질(天然麗質) 절로 이니
이 얼굴 이 태도(態度)로 백년기약(百年期約) 하였더니
연광(年光)이 홀홀하고 조물주가 시기하여
봄바람 가을 물이 베올 사이 북 지나듯
설빈화안(雪鬢花顔) 어디 두고 면목가증(面目可憎) 되었구나
내 얼굴 내 보거니 어느 임이 날 괼소냐
옥창(玉窓)에 심은 매화(梅花) 몇 번이나 폈다 졌는고
겨울밤 차고 찬 때 자최는 섞어 치고
여름날 길고 긴 때 ㉠궂은비는 무슨 일인고
삼춘화류(三春花柳) 호시절(好時節)에 경물(景物)이 시름없다
가을 달 방에 들고 실솔(蟋蟀)이 상(床)에 울 때
긴 한숨 지는 눈물 속절없이 헴만 많다
아마도 모진 목숨 죽기도 어렵구나
돌이켜 풀어 헤아리니 이리하여 어이하리
㉢청등(青燈)을 돌려놓고 녹기금(綠綺琴) 비스듬히 안아
벽련화(碧蓮花) 한 곡조를 시름 좇아 섞어 타니
소상 야우(瀟湘夜雨)의 댓잎 소리 섞여 도는 듯
화표(華表)* 천 년(千年)의 별학(別鶴)이 울고 있는 듯
옥수(玉手)의 타는 수단(手段) 옛 소래 있다마는
부용장(芙蓉帳) 적막(寂寞)하니 뉘 귀에 들리겠는가
간장(肝腸)이 구곡(九曲) 되어 굽이굽이 끊겼어라
차라리 잠이 들어 ㉡꿈에나 보려 하니
바람에 지는 잎과 풀 속에 ㉣우는 벌레
무슨 일 원수로서 잠조차 깨우는가

- 허난설헌, 「규원가(閨怨歌)」 -

작품 적중

화법과 작문 : 화법 — 문항 유사

-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해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됨
- 라디오 방송 진행자의 계획과 그 반영 여부를 묻는 문제가 출제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5.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질문의 형식을 활용하여 청취자에게 실천을 권유하고 있다.
② 견해의 근거가 되는 출처를 언급하여 청취자가 신뢰감을 갖게 하고 있다.
③ 감사 표현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청취자에게 정중한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④ 스스로 묻고 답하는 방식으로 개념을 설명하여 청취자의 이해를 돕고 있다.
⑤ 중심 화제를 다양한 일상적 소재에 비유하여 청취자에게 친숙한 느낌을 주고 있다.

36. 다음은 진행자가 방송 진행을 위한 계획을 메모한 것이다. 위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 도입부
  - 청취자의 사연을 읽고 문제 해결을 돕는 방식으로 방송을 진행할 것임을 소개 ····· ①
- 중심부
  - 사연을 읽고, 사연 속 상황으로 인해 사연 신청자가 느꼈을 감정을 언급 ····· ②
  - 사연 속 문제 상황의 원인을 밝히고, 사연 신청자의 문제 해결을 위해 조언 ····· ③
  - 대화할 때 활용할 수 있는 화제의 예를 제시하고, 각각의 예를 활용한 발화 내용을 구성하여 소개 ····· ④
- 마무리
  - 방송 내용에 관해 청취자가 자신의 생각을 남길 수 있는 방법을 안내 ····· ⑤

2021 이감 시즌5 5차

35. 위 방송 진행자의 말하기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사연 신청자의 마음에 공감하고 사연과 관련된 소망을 밝히고 있다.
② 사연을 신청하는 방법을 소개하고 다음 방송의 주제를 예고하고 있다.
③ 사연과 관련된 전문가의 말을 인용하여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 있다.
④ 사연과 관련된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면서 사연을 선정하게 된 동기를 밝히고 있다.
⑤ 사연에 대한 답변을 정리하고 사연에서 드러난 문제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다른 방법도 소개하고 있다.

36. 다음은 위 방송을 진행하기 위해 진행자가 세운 계획이다. 방송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오프닝] 방송의 취지와 방송 제목을 소개하며 시작
[사연 소개 및 분석]
○ 사연을 소개하며, 잠들기 위한 방법으로 양 세기가 널리 알려지게 된 배경 설명 ····· ㉠
○ 잠에 들려 할 때 뇌에서 나오는 뇌파를 알려 주고 이를 유도할 수 있는 방법 소개 ····· ㉡
○ 잠드는 데 방해가 되는 행동을 제시하고 이때 나오는 뇌파를 안내 ····· ㉢
[사연과 관련된 추가 답변]
○ 안정적인 생체 리듬을 갖는 방법 제시 ····· ㉣
○ 수면을 방해하는 음식과 도움이 되는 음식 제시 ····· ㉤
[클로징] 청취자 게시판에 관한 안내 및 인사말로 마무리

① ㉠ ② ㉡ ③ ㉢ ④ ㉣ ⑤ ㉤

문항 유사

화법과 작문 : 화법-작문 통합 — 문항 유사

– 협상 진행 과정에서의 발화 특성을 파악하는 문제가 출제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 (가)를 작성할 때 활용한 내용 조직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1문단에서는 시청에서 주민 복지 센터 건립을 위해 수행하는 여러 업무를 유형에 따라 분류한다.
② 2문단에서는 시청에서 주민 복지 센터 신설을 추진하게 된 이유를 나열한다.
③ 2문단에서는 Y동 주민들이 겪는 문제를 Z동 주민들이 겪는 문제와 대조한다.
④ 3문단에서는 주민 복지 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한다.
⑤ 4문단에서는 다양한 시설들을 설치가 완료된 순서대로 제시한다.

2021 이감 시즌4 3차

43. '초고'에 반영된 내용 조직 방법으로 적절한 것은?

① '넛지'의 실제 사례는 대조의 방법으로 제시한다.
② '넛지'에 대한 정의는 묻고 답하는 구조로 제시한다.
③ '넛지'의 필요성은 원인과 결과가 드러나도록 제시한다.
④ '넛지'를 활용할 때 지켜야 하는 원칙은 나열하여 제시한다.
⑤ '넛지'가 널리 확산되어 온 과정은 시간 순서대로 제시한다.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1. 협상 진행 과정을 고려할 때, ㉠,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① ㉠은 도서관 설치와 관련해 양보할 수 있는 범위를 제시하여 상대의 제안과 절충을 시도하는 발화이다.
② ㉠은 체육 시설에 대한 상대의 제안을 일부 수용하여 자신의 제안을 조정함으로써 상대의 양보를 이끌어 내는 발화이다.
③ ㉡은 체육 시설 설치가 실현 가능성이 낮음을 들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발화이다.
④ ㉡은 체육 시설 이용에 대한 상대의 요구 사항을 언급하며 자신이 양보 가능한 범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⑤ ㉡은 체육 시설 이용 시 예상되는 상대의 이익과 자신의 부담을 언급하며 추가적인 요구 사항을 제시하는 발화이다.

2021 이감 시즌4 2차
2021 이감 시즌5 5차

41. (나)에 나타난 '임해 씨'의 발화 의도를 고려할 때,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④ ⓐ는 상대방의 제안에 동의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를 묻는 발화이다.
⑤ ⓐ는 자신의 요구를 드러내는 발화이고, ⓑ는 자신의 더 이상 양보할 수 없는 한계를 제시하는 발화이다.

41. (나)의 담화 흐름을 고려할 때, ⓐ와 ⓑ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는 자신의 기본 입장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는 상대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발화이다.
② ⓐ는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탐색하려는 발화이고, ⓑ는 상대와의 의견 차이를 조정하려는 발화이다.
③ ⓐ는 자신이 양보할 수 없는 지점을 제시하는 발화이고, ⓑ는 상대에게 양보를 요청하는 발화이다.
④ ⓐ는 자신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드러내는 발화이고, ⓑ는 상대의 입장에 공감함을 나타내는 발화이다.
⑤ ⓐ는 상대의 제안을 수용함을 나타내는 발화이고, ⓑ는 자신의 제안에 대한 상대의 동의를 구하는 발화이다.

문항 유사

화법과 작문 : 작문 — 문항 유사

– 기존의, 추가로 수집한 자료의 활용 방안 문제가 출제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3. 학생이 보고서의 초고에 사용한 글쓰기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통계 자료를 통해 객관적인 정보를 제시한다.
② 문헌 자료 분석을 통해 결론의 근거를 제시한다.
③ 다양한 해결 방안의 장단점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④ 조사 기간과 방법 및 대상을 항목화하여 제시한다.
⑤ 조사 내용과 관련된 전문 용어의 개념을 설명한다.

2021 이감 시즌4 2차

45. <보기>의 ㉠~㉤ 중 (가)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3점]

<보 기>

선생님 : 보고서 작성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조사 목적과 절차, 결과 그리고 결론 등 보고서의 형식을 갖추어 작성해야 합니다. 그리고 조사 절차와 결과가 잘 드러나도록 써야 합니다. ㉡조사 절차는 조사 대상, 조사 기간과 조사 방법, 그리고 조사 내용을 기술하여 밝히고, ㉢조사 결과는 소제목을 달아 주제를 항목별로 제시합니다. 또한 ㉣보고서에 타인의 글을 인용할 경우 출처를 명시하고, ㉤'참고 문헌'에는 인용한 자료뿐만 아니라 참고한 모든 자료를 명시해 쓰기 윤리를 준수해야 합니다.

문항 유사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5. <보기>는 보고서의 초고를 쓴 학생이 초고의 [A]를 보완하기 위해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ㄱ을 활용하여, 조합원을 위한 체험 활동비 지원이 조합원 복지 제도로서 협동조합의 수익금 사용 방법에 부합함을 밝혀 해결 방안의 근거로 제시한다.
② ㄴ을 활용하여, 조합원의 이탈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의 예로 조합원에게 도서 구입비를 지원하는 것을 추가한다.
③ ㄴ을 활용하여, 협동 매점의 수익금 감소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SNS와 같은 소통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제시한다.
④ ㄷ을 활용하여, 협동 매점의 수익금을 늘리는 방안 중 하나로 협동조합에 대한 안내를 통해 협동 매점 이용자들의 불만 사항을 해소해 주는 것을 추가한다.
⑤ ㄷ을 활용하여, 조합원 가입이 저조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 중 하나로 학교 게시판이나 누리집에 협동조합을 홍보하여 학생들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을 제시한다.

2021 이감 시즌4 3차

44. <보기>는 '초고'를 보완하기 위해 추가로 수집한 자료이다. 자료 활용 방안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① ㄱ을 활용하여, '넛지'가 여러 분야에 활용되고 있다는 내용에 '넛지'가 공공 정책 분야에서도 활용된다는 점을 추가한다.
② ㄴ을 활용하여, '넛지'가 현명한 선택을 하도록 유도한다는 내용에 사람들이 '선택 설계자'의 윤리적인 기준에 따라 현명한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함을 제시한다.
③ ㄷ을 활용하여, '넛지'의 의도가 투명해야 한다는 내용에 그렇지 않을 경우 사람들을 기만하는 '다크 넛지'가 되어 사람들을 오도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④ ㄱ과 ㄴ을 활용하여, '넛지'를 활용하는 주체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 특히 정부가 공공 정책에 '넛지'를 활용할 때에는 공익을 위해 선택 환경을 설계하는 책임감이 요구됨을 제시한다.
⑤ ㄱ과 ㄷ을 활용하여, '넛지'의 행동 변화 유도 효과를 다루고 있는 내용에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발이 줄어들고 자발적인 행동 변화가 지속될 수 있다는 점을 추가한다.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음절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음운 변동과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실제 발음이 아니라 ㉢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추카]'와 같이 ㉤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35. ㉠~㉤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에 따라 '싫증'은 싫다는 의미를 [illegible] 첫 글자의 형태를 고정하여 표기한 [illegible]이다.
② ㉡에 해당하는 예로 '복소리'와 '국[illegible]'을 들 수 있다.
③ ㉢에 따라 끝말잇기를 할 때, '나[illegible]' 뒤에 '일세'는 [illegible] 수 있다.
④ ㉣의 구분에 따르면 '강'과 '복'은 같은 음절 유형에 해당하지만, '목'과 '몫'은 서로 다른 음절 유형에 해당한다.
⑤ ㉤에 해당하는 예로 '북어'를, 해당하지 않는 예로 '강변'을 들 수 있다.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① ⓐ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② ⓑ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③ ⓒ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④ ⓓ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⑤ ⓔ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2021 이감 ON 5차

38.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선생님 : 음절은 '㉮ 모음, ㉯ 자음+모음, ㉰ 모음+자음, ㉱ 자음+모음+자음'의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음절은 발음할 수 있는 최소 단위를 의미하므로, 음절의 유형을 파악할 때에는 단어의 발음을 고려해야겠지요? 예를 들어 '홑이불[혼니불]'에서는 음운 교체와 첨가가 일어난 결과, ㉯와 ㉱에 해당하는 음절이 확인되지요. 아래 단어들의 음절 유형에 대해 탐구해 봅시다.

㉠ 가래엿[가래엳], ㉡ 물어울[물려울], ㉢ 실낳이[실:라이], ㉣ 와닿다[와다타], ㉤ 역학적[여칵쩍]

① ㉠ : 음운의 교체가 일어난 결과, ㉯와 ㉰에 해당하는 음절을 확인할 수 있다.
② ㉡ : 음운의 첨가와 교체가 일어난 결과, ㉯와 ㉰와 ㉱에 해당하는 음절을 확인할 수 있다.
③ ㉢ : 음운의 교체와 탈락이 일어난 결과, ㉮와 ㉯와 ㉱에 해당하는 음절을 확인할 수 있다.
④ ㉣ : 음운의 축약이 일어난 결과, ㉮와 ㉰에 해당하는 음절을 확인할 수 있다.
⑤ ㉤ : 음운의 축약과 교체가 일어난 결과, ㉯와 ㉱에 해당하는 음절을 확인할 수 있다.

문항 유사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음절의 유형에 대해 이해하고, 이를 음운 변동과 연관 지어 파악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를 공통적으로 다룸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발음이 동일하다고 생각하기 쉽다. 하지만 한글 표기법에는 소리를 그대로 적는다는 원칙도 있지만 ㉠ 의미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하나의 의미는 하나의 형태로 고정하여 적는다는 원칙도 있어서, ㉡ 표기가 실제 발음을 그대로 드러내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표기된 글자가 실제 발음과 다르더라도, 우리는 실제 발음이 아니라 ㉢ 표기된 글자 하나하나를 '음절'이라고 인식하는 관습이 있다. 끝말잇기도 이러한 관습을 규칙으로 하여 이루어지는 놀이이다. 그러나 발음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표기가 아니라 발음을 기준으로 음절을 인식해야 한다.

발음을 기준으로 할 때 우리말의 음절은 네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 어떤 음절이든 자음과 모음의 결합 방식에 따라 ㉣ '모음', '자음+모음', '모음+자음', '자음+모음+자음' 중 한 가지 유형에 해당한다. 각 음절 유형은 표기 형태에 그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지만, '축하[추카]'와 같이 ㉤ 표기 형태가 음절 유형을 그대로 나타내지 않는 경우도 있다.

문항 유사

36. [A]를 바탕으로 할 때,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보 기>

	표기	발음
ⓐ	군이	[구지]
ⓑ	옷만	[온만]
ⓒ	물약	[물략]
ⓓ	값도	[갑또]
ⓔ	핥는	[할른]

①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②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③ ⓒ: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④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무관한 첨가가 한 번 일어난다.
⑤ ⓔ: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탈락이 한 번, 음절 구조 제약과 관련된 교체가 한 번 일어난다.

2021 언어(문법) 200제

〈보기〉를 참고하여 단어의 음절 유형을 분석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음절(音節)'은 음운이 모여서 이루어지는 소리의 결합체로, 발음할 수 있는 최소의 언어 단위이다. 우리말에서 그 유형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1) 모음 하나로 된 것	예 아, 야
(2) 자음+모음으로 된 것	예 과, 며
(3) 모음+자음으로 된 것	예 옥, 왕
(4) 자음+모음+자음으로 된 것	예 묵, 별

① '굳이[구지]'는 음운 변동의 결과, (1)에 해당하는 음절과 (2)에 해당하는 음절이 각각 한 개씩 나타난다.
② '외과[외꽈]'는 음운 변동의 결과, (1)에 해당하는 음절과 (3)에 해당하는 음절이 각각 한 개씩 나타난다.
③ '겉옷[거돋]'은 음운 변동의 결과, (2)에 해당하는 음절과 (3)에 해당하는 음절이 각각 한 개씩 나타난다.
④ '국립[궁닙]'은 음운 변동의 결과, (2)에 해당하는 음절과 (4)에 해당하는 음절이 각각 한 개씩 나타난다.
⑤ '알약[알략]'은 음운 변동의 결과, (3)에 해당하는 음절과 (4)에 해당하는 음절이 각각 한 개씩 나타난다.

언어와 매체 : 언어 — 문항 유사

– 중세 국어의 격 조사와 관련된 문제를 이감 모의고사에서 공통적으로 다룸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39. <보기>의 ㉠~㉤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중세 국어 조사의 쓰임]

㉠ 주격 조사 '|'는 모음 '이'나 반모음 'ㅣ' 이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다.
㉡ 목적격 조사 '을' 또는 '을'은 자음으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관형격 조사 'ㅅ'은 사물이나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 부사격 조사 '로'는 모음이나 'ㄹ'로 끝나는 체언 뒤에 쓰였다.
㉤ 호격 조사 '하'는 존대 대상인 체언 뒤에 쓰였다.

① ㉠: 드리 즈믄 フ롬매 비취요미 [달이 천 개의 강에 비치는 것이]
② ㉡: 바볼 머굼 대로 혜여 머굼과 [밥을 먹을 대로 헤아려 먹음과]
③ ㉢: 그 나못 불휘를 뻬혀 [그 나무의 뿌리를 빼어]
④ ㉣: 물군 믈로 모술 밍ᄀᆞ노라 [맑은 물로 못을 만드노라]
⑤ ㉤: 님금하 아ᄅᆞ쇼셔 [임금이시여, 아십시오]

2021 이감 시즌5 3차
2021 이감 ON 3차

38. <학습 활동>의 [A]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자료]를 참고하여 중세 국어의 주격 조사에 대해 알아보자.

[자료]
중세 국어에서의 주격 조사는 음운 조건에 따라 '이, Ø(영형태), |'로 실현되었다. '이'는 자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사용되었으며, 체언의 종성이 연음된 형태로 표기됐다. 'Ø'는 모음 'ㅣ'나 반모음 'ㅣ'로 끝난 체언 뒤에서, '|'는 그 외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서 앞 모음과 결합한 형태로 사용되었다.

[활동 결과]

[A]

① 체언 '쇼(소)'는 주격 조사가 결합하더라도 음절 수가 바뀌지 않는다.
② 체언 '도ᄌᆞ(도지)'에 주격 조사가 결합할 경우, '도ᄌᆞ기'로 [illegible]
③ 체언 '불휘(뿌리)'는 주격 조사가 결합하더라도 그 형태가 바뀌지 않는다.
④ 체언 '부텨(부처)'와 체언 '양ᄌᆞ(모습)'에는 동일한 형태의 주격 조사가 결합한다.
⑤ 체언 '구기(국자)'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와 체언 '국(국)'에 주격 조사가 결합한 형태는 서로 다르다.

중세 국어에서 관형격 조사나 호격 조사는 선행 체언의 성격에 따라 그 형태가 다르게 나타났다. 중세 국어의 관형격 조사로는 '익/의', 'ㅅ', 'ㅣ'가 있었는데 만약 선행 체언이 유정물이면 '익/의'가 쓰였다. 이때 '익/의'는 모음 조화에 따라 선택되었다. 그러나 선행 체언이 무정물이거나 존대해야 할 유정물이면 'ㅅ'이 쓰였다. 이외에 관형격 조사 'ㅣ'는 '나, 너, 저'와 같은 대명사나 일부 체언에 붙어 쓰였다.

호격 조사는 선행 체언에 대한 존대 여부에 따라 다른 형태로 쓰였다. 낮춤의 의미를 나타낼 때에는 현대 국어와 마찬가지로 '아/야'가 쓰였다. '야'는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쓰였지만, '아'는 자음이나 모음으로 끝난 체언 뒤에 모두 쓰일 수 있었다. 부르는 대상을 존대할 경우에는 선행 체언이 유정물이든 무정물이든 '하'가 쓰였다.

문항 유사

언어와 매체 : 매체 — 문항 유사

- 매체 일반의 특성에 관한 문항이 웹툰 매체 및 온라인 매체의 쌍방향 소통 측면을 중심으로 출제됨
- 매체의 생산 및 표현 기법과 관련한 문항이 매체 자료만 다른 매우 유사한 형태로 출제됨

2022학년도 9월 모의평가

44. (가), (나)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가)는 웹툰 제작자가 웹툰을 제작하기 위해 사연 신청자의 요청을 반영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② (가)는 웹툰 제작자가 (나)의 댓글이나 별점을 통해 웹툰의 독자가 보인 반응을 확인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③ (나)는 웹툰의 독자가 댓글로 서로 공감하며 상호 작용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④ (나)는 웹툰의 독자가 하이퍼링크를 통해 웹툰 제작자가 지정한 곳으로 이동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⑤ (나)는 웹툰의 독자가 이미지에 담긴 의미에 대해 웹툰 제작자에게 직접 묻고 답을 얻고 있음을 보여 준다.

45. (가)의 웹툰 제작 계획을 (나)에 반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① 시간의 경과를 드러내기 위해 장면이 제시되는 방향을 고려하여 숫자를 세로로 배열해 날짜 변화를 표현했다.
② 한 인물이 겪는 두 가지 사건을 비교하기 위해 화면을 세로로 분할하여 인물의 행동 변화를 나란히 보여 주었다.
③ 멀어지는 친구 사이를 시각적으로 보여 주기 위해 인물들 사이에 여백을 두어 점차 간격이 벌어지게 그렸다.
④ 속마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기 위해 표정이나 몸짓으로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글로도 적어 감정을 명시적으로 드러냈다.
⑤ 많은 독자들의 조언을 유도하기 위해 말풍선을 의도적으로 비우고 댓글 참여를 권유하는 문구를 제시했다.

2021 이감 시즌4 5차

40. (가)와 (나)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① (가)와 (나)는 모두 댓글을 통해 정보 생산자와 정보 수용자 사이에 쌍방향 의사소통이 즉각적으로 이뤄질 수 있다.
② (가)는 (나)와 달리 기사를 확인한 시간에 따라 정보 수용자가 접하는 기사의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
③ (가)는 (나)와 달리 기사의 핵심 내용을 담은 표제를 제시하여 정보 수용자의 기사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
④ (나)는 (가)와 달리 현장 화면을 담은 영상을 제시하여 정보에 대한 실재감을 높이고 있다.
⑤ (나)는 (가)와 달리 전자 우편 주소를 표시해 정보 수용자가 정보 생산자에게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44. ㉠~㉤을 바탕으로 '은서'가 세운 영상 제작 계획 중 (나)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① ㉠에서 언급된 주제는 영상이 시작되는 #1에 자막으로 제시하여 알려 주어야겠군.
② ㉡에서 언급된 효과를 얻기 위해 카메라의 시야와 영상 속 보행자의 시야가 일치하도록 촬영해야겠군.
③ ㉢에서 언급된 연구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보는 시선을 따라 밝고 어두운 영역이 구분되도록 연출해야겠군.
④ ㉣에서 언급된 그래프의 내용은 #4에 오버랩되는 자막으로 삽입해야겠군.
⑤ ㉤에서 언급된 요소들을 장면과 어울리도록 삽입하여 영상을 복합 양식적으로 나타내야겠군.

문항 유사